

교단개혁 가속... 정보 인프라 구축

조계종을 시업 주요 내용

3월 중정추대 및 본격적인 사면논의, 불교문화기념관 착공, 5월 템플스테이 실시, 10월 제13대 중앙총회 구성, 조태 분규사찰 문제 해결, 조계종학 및 수행체계 연구, 조계종사편찬 기념법회 사진전세미나 개최 등 통합종단 40주년기념행사.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승님이 15일 밝힌 올해 주요 사업계획이다.

통합종단 출범 40주년을 맞는 조계종이 제시한 올해 청사진은 내실화 가속과 한국불교의 정신과 자원을 내 외국인들에게 향유케 하여 한국불교의 저변확대로 압축된다. 이는 다종교사회에서 불교의 역할과 위상을 위해 교단이 거듭나기 위한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승님은 "그 동안 사회적 물의와 비불교적 수단이 동원되는 부작용이 유발되어 사회적 질타와 중도간 갈등과 반목도 있어 왔음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혀, 스스로 변하고 준비하는 속에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용이다.

● 한국불교역사기념관 3월 착공: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뤘던 불교역사문화의 체계적 보호와 전승을 목적으로 조계사 경내에 세워지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은 지하4층 지

상4층 연건평 5천212평 규모로 3월에 착공하여 내년 중순에 준공한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은 한국 불교문화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실과 수장고를 갖춰 불자들에게 일반 국민,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민족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예술 공연 및 전시장, 국제회의장을 갖춰 체험의 공간으로 제공된다.

● 통합종단 40주년 기념사업:

민족종교·수행종단 정체성 확고히 외국인 전통사찰 문화체험 추진

조계종은 통합종단 출범 40주년을 맞아 전통종단으로서의 종교적 문화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정신적 물질적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 아래 한국불교의 현대사를 조망해 볼 수 있는 조계종학 및 수행체계 연구, 조계종사 관련, 기념법회, 사진전, 세미나 개최 등을 준비 중이다.

안정과 화합, 종단의 수행기풍 진작과 개혁, 사회적 역할 증진을 통해 1600여년의 민족종교, 수행종단으로서의 정체성과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의제연구 및 개선 추진, 승가고시 및 법제정착, 중앙신



△조계종은 15일 신년사업계획을 발표하고 통합종단 출범 40주년을 맞아 전통종단으로서 문화·종교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도회 활성화, 조계사 성역화 사업, 군 법당 종단등록, 사찰 성보박물관의 기능을 활성화, 불교문화재 일제 물리적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 아래 한국불교의 현대사를 조망해 볼 수 있는 조계종학 및 수행체계 연구, 조계종사 관련, 기념법회, 사진전, 세미나 개최 등을 준비 중이다.

● 한국문화 진수 개방: 올해는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는 때를 맞아 민족의 종교를 대표하고 한국문화의 진수를 간직하고 있는 전통사찰을 개방하여 외국인 대상 전통사찰문화체험(Temple stay) 사업을 추진한다.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불기 2546(2002)년 1월 15일

20여 사찰에서 40일간 시행하는 템플스테이 사업과 관련 정대승님은 "현재 정부로부터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기는 했지만 '코끼리 코의 비스킷' 처럼 턱없이 부족하지만 기존의 사찰시설을 잘 활용하여 1백여원대의 사업을 펼쳐겠다"고 말했다.

● 정보인프라 구축: 내외적 과제 달성과 비전을 위해 시대적 과제인 정보인프라 구축 및 종단 총무행정 체계화를 갖춰 나간다.

이를 위해 교구본사 총무행정 전산화, 체계화 지원에 역점을 두고, 홈페이지의 온라인 총무행정 서비스 체계, 교계인물 인력풀 구축, 종단 보존문서 정비, 종단 외국어 표기 표준화사업, 미등록 사찰사업 종단 등록추진, 불교종합정보망(달마넷) 활성화를 추진한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nia.com

'제도개혁' 닷 올린 태고종

17일 중헌 중법 개정안 통과

1년여의 논의를 마무리짓고 종단통합을 이룬 태고종이 17일 열린 제8회 임시 중앙총회에서 중헌중법 제·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본격적인 제도개혁의 닷을 올렸다. 이번 제도개혁안은 총무원장 운산스님 등 집행부가 전국을 순회하며 중도들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여러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했다.

이번 제도개혁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은 크게 세가지이다. 우선 태고종은 그동안 4부중으로 돼 있던 종단 구성을 출가승과 신도(우바이 우바새) 외에 전교사 제도를 넣어 6부중으로 했다. 전교사(傳敎師)란 재가승을 지칭한다. 과거의 유발승 제도를 새롭게 공인해 대승교화종단으로서의 특색을 살리겠다는 취지이다. 또 중회를 상하 양원제로 해 종단 주요사안에 대한 원로 중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했다. 그리고 교육원 포교원 홍보원 복지원 등 전문기관을 별도로 설치해 고유 업무를 강화하고 조직을 새롭게 정비했다. 이와 아울러 사찰등록 및 지지 임명, 승적업무, 재산관리 등 총무원 업무를 지방 교구총무원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해 지방교구의 자치권을 강화시킨 점도 눈에 띈다.

한편 원로회의법을 새로 제정해 원로들의 권한을 확대했다. 원로회의는 종단의 최고 상의회 기관으로 비상사태시에 중회를 해산할 수 있으며, 종정 추대권 뿐 아니라 중헌개정안 인준권, 총무원장 인준권 등 종단 중요사안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갖는다. 원로회의 의원은 의원정수의 70%는 지방중회 의결을 거쳐 각교구별 총무원장이, 30%는 총무원장이 추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토

록 했다. 원로회의 의원의 임기는 4년이고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자격은 승랍 40세 이상 연령 65세 이상 법계종사 이상.

또한 총무원 산하 전문기관으로 종전의 종승연구원, 전통불교문화원, 국제불교문화원 외에 재정문제를 담당하는 재정경제원, 홍보를 담당하는 중헌홍보원,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중앙복지원을 새로 설치했다. 태고종이 그동안 골머리를 앓아온 재정문제의 해결과 종단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으로 보인다. 또 종단의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원, 포교업무를 담당하는 포교원을 각각 두었으며, 기존의 사정원이 사법기관으로서의 재판기능을 강화한 중앙호법위원회로 바뀌었다. 법규위원회도 지위가 격상돼 종단의 법령을 심사하고 유권해석을 내리는 국가헌법심판소와 같은 기능을 갖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태고종은 이번 제도개혁을 종단정체성 및 체계질서 확립, 총무행정의 효율성, 종단의 대외적인 위상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인사의 적체적소 기용과 크게 늘어난 재정문제 해결에 제도개혁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총무원장 운산스님은 "이번 중헌중법 제 개정을 계기로 전통종단으로서의 면모를 회복하고 대승교화종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종합적인 종단발전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84회 임시총회에서는 혜초, 일우, 남파, 법장, 연운, 인국, 철화, 혜경, 제공 스님 등 9명의 원로스님을 승정으로 새로 추대했다.

이경숙 기자 gstee@buddhania.com

"동국학원 횡령 본질은 시스템 붕괴"

조계종 중립위 진상조사... "이사 중사퇴" 요구

조계종 중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호담)는 18일 총회 사무처에서 제 38차 회의를 개최하고, 동국학원 횡령사건과 관련 이사장 녹원스님, 감사 항적 무관스님, 안재봉 법인총무팀장에게 민 행사상 책임 물을 것을 재단에 요구했다. 또 동국학원 이사장의 총사퇴를 요구하고, 스님 감사들을 종단 징계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중립학교관리위원회의 결의사항은 3월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논란을 거친 뒤 어떤 형태로든 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중립학교관리위원회 산하 동국학원 진상조사 소위원회(위원장 영담, 이하 진상소위)는 "이번 법안사무처 직원 김태규의 동국학

원 법인세 환급금 34억여원 횡령사건이 시스템의 붕괴에서 기인했다"고 보고 있다.

진상소위 조사에 따르면 공금횡령이 2년간 지속적으로 진행되며 2000년 동국학원 워크숍에서 포항 병원 관계자가 법인세 환급금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질문을 한바 있고, 2001년 5월 동국학원 소위원회에서 영배스님이 동국학원 및 학교 관계자가 있는 자리에서 법인세 환급금 미납 확인을 요청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6월 23일 추가로 13억여원이 빠져나가는 불상사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10월 23일 중부세무서

의 법인세 환급금 지급사실을 확인한 뒤 김태규를 불러법행에 대한 자백을 받은 법안사무처 팀장이 17일 이 지난 11월 12일에야 이사장에게 보고함으로써 결손금 확보시기를 놓쳤다는 것이다.

진상조사 소위는 이 같은 사실에 바탕하여 직인관리소홀 및 경리사 고의 책임을 물어 법안사무처 안재봉 총무팀장과 동국대 황영수 사무처장에 대해 재단과 학교의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진상소위는 공금횡령에 따른 법인세환급금 34억여원(동국대 27억, 동대부중 등 산하 종교 7억)의 횡령재산 회수에 대해서는 두

몇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진상소위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김태규 장인과 장모가 직접 가져온 2억원 이외에는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태규가 10억을 투자한 역술사이트의 경우 1억원의 증권증명이 있으나 상장이 되지 않아 휴지조각에 불과하며, 안산의 부동산 업자 황 모 씨에게 투자한 4억원은 24억짜리 문구점 어음을 받은 것으로 돼 있으나 영수증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금횡령금액을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책임소재가 이슈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원우 기자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도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02)737-0090

태고종 '자리' 많아졌다

정무담당 부원장 - 원봉 스님

재정담당 부원장 - 수중 스님

행정담당 부원장 - 자월 스님

태고종은 17일 총무원 부원장에 원봉, 수중, 자월 스님, 총무부장에 월해 스님 등 총무원 간부진을 대폭 확대했다.

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번 인사는 특히 구 비상대책회의 측 스님들을 대거 동참시켜 종단운영을 함께 하도록 했다. 이번 인사는 다음과 같다.

△정무담당 부원장: 원봉 △재정담당 부원장: 수중 △행정 담당 부원장: 자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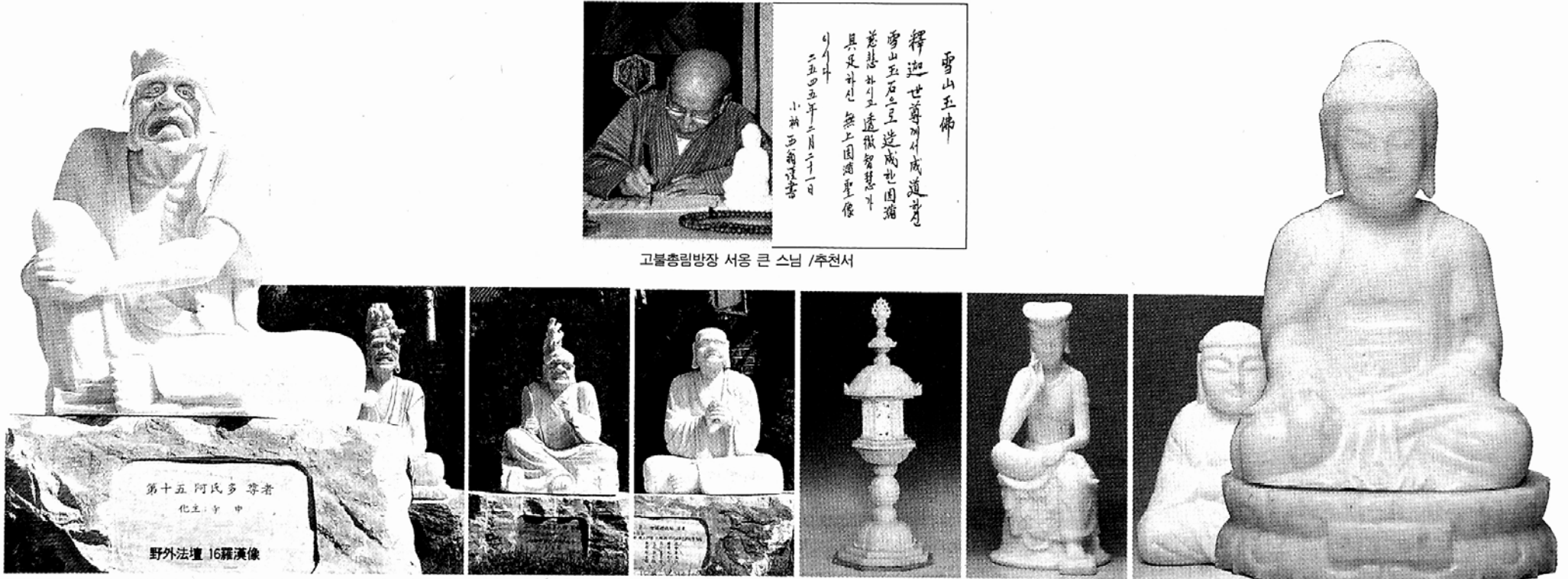
△기획감사실장: 해공 △총무부장: 월해 △교무부장: 법성 △재무부장: 지홍 △사회부장: 일로 △규정부장: 경담 △사업부장: 호명 △교임부장: 동우 스님



조각작품으로 雪山白玉佛

한불 한불 정성껏 조각하여 모십니다

우리부처님
코리아붓다
KOREA BUDDHA
http www.korea-buddha.co.kr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633-6 새한빌딩 401호
Tel 서울(02) 854-8834 부산(051) 637-2333
Fax 서울(02) 839-2185 부산(051) 637-6988



고불총림방장 서용 큰 스님 /추천서